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전국 첫 '우수단지'

산자부 '1회 성과 공유회'서 선정
인프라 구축·인력양성 등 높은 점수
자율차 인지·제어·통신 분야 특화
앵커기업 이전 등 사업 추진 '속도'

'광주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전국 최초로 소부장 우수단지에 선정됐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제1회 소부장 특화단지 성과 공유회'에서 광주시와 충남도 소부장특화

단지가 우수 특화단지로 선정, 시상했다.

올해 처음 열린 성과 공유회에서는 전국 10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보유한 지자체 10곳이 참가했으며, 각 단지별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특화단지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포상했다.

광주시는 속도감 있는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앵커기업 투자 유치, 광역 협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자율차 부품의 핵심기술인 인지·제어·통신 분야로 특화 지정받은 광주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설계 용역 착수, 연구개발(R&D) 및 인력 양성 추진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앵커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DH 오토웨어가 자율주행차 전장기술 도입을 목표로 광주 특화단지로 이전기로 하고,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한 공장 건립이 진행 중이다.

타 산업·광역 협업을 통해 대구 모터, 부산 전력반도체 등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제1회 글로벌 소부장 기술포럼'과 '소부장 금융카라반' 등의 행사를 추진, 광주가 자율차부품 산업뿐만 아니라 소부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는 지난해 7월 지정돼 관계 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올해 4월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지원계획을 최종 확정했으며, 지난달 협약을 체결, 사업을 본격화했다.

광주 미래차소부장 특화단지는 총 사업비 603억원을 5년 간 투입해 최신 자율주행 성능평가 장비 21종을 도입하는 '자율

주행 안전 성능평가 인증 기반구축', 200m급 라이다를 개발하는 '자율주행 통합 제어시스템 연구개발(R&D)', 54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인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 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한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소부장 특화단지 평가에서 '우수단지'로 최초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부장 특화단지를 내실 있게 추진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기자 byeongha.no@jinilbo.com

전남도, 내년부터 외국국적 아동 보육료 지급

어린이집 0~5세 대상 월 10만원

전남도가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국적 아동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한다.

외국국적 아동의 보육 여건 개선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해 지역 330여 외국국적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국적 아동이다.

지원을 바라는 영유아 가정은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시군에서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현재 유치원에서는 3~5세 외국국적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가정은 보육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충북, 경남 등 다른 지자체는 3~5세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전남도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를 전격 지원하게 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인구 유입을 위해 외국국적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 정착, 인구감소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온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6일 도청 접견실에서 미국 김미헬스푸드 공동설립자인 스티브 브로드, 애니 전 대표와 전남산 김 가공 산업 외자 유치를 위한 면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12월 2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광주시는 올해 2기분(7~12월) 자동차세 18만건에 대해 216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으로, 매년 2회(6월1일·12월1일) 부과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2기분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납세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하반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 자동입출금시스템(ARS 142-211)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노병하기자

김 지사 "국립 의대는 대국민 약속, 차질없이 추진돼야"

"탄핵 정국으로 도정현안 영향 우려" "지역핵심·전략사업, 계획대로 추진"

김영록 전남지사가 12·3 비상계엄이 물고온 탄핵 정국과 별개로 전남 최대 현안인 국립 의과대학 신설 등 지역 핵심·전략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탄핵 정국으로 도정 현안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국립 의대 설립과 특별자치도 설치, 무안공항 활성화 등 주요 현안은 단계별 로드맵 등을 통해 당초 계획

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립 의대 설립에 대해선 꼭 짚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담화문 방식으로 국민들 앞에서 '의대가 없는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을 수렴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신속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국무총리도 지난달 29일 전남 방문 때 긍정적으로 답변한 부분인 만큼 양 대학(목포대, 순천대)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정부의 대국민 약속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감과 의지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립 의대 이외에 주요 현안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도 강조했다.

전남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의대 2026년 설립을 비롯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무안공항 활성화 △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정 △남도국제식품산업박람회 △국립 김산업진흥원 및 마른김 전용 물류센터 구축 등을 들었다.

오지현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Yes it's true b'anced

밸런스 라인

PERON 엑스페론